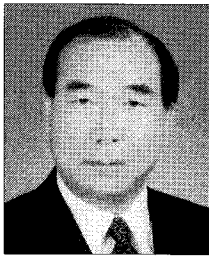


후진국과 선진국

글·김광수 회장 동아전기공업(주)



제1차산업(第一次産業)·제2차산업·제3차산업이라는 것은 산업구성에 관한 클라크(C. Clark)의 구분법으로, 이것은 경제발전

단계의 지표가 된다. 1차산업은 원시산업이라고도 하며, 농업·임업·수산업·수렵(狩獵)·목축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차산업은 가공산업(加工産業)이라 하여 광공업이 그 중심이 되며, 3차산업은 서비스를 그 전형(典型)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또한 경제발전단계의 지표라고 칭하는 것은 우선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진전함에 따라 1인당 생산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또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인구가동이 종극에는 간접적으로 경제복지의 증대를 뜻하는 것이 되어 경제발전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제발전단계의 지표가 매우 유용한 까닭은 우선 그것이 통계적 자료(資料; data)와 결부된 양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비교가

용이한 까닭에 양적인 기초 위에서 질적인 차이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또한 인구구성과 각 산업별간의 생산수준의 차를 결합함으로써 최근의 국민소득적 방법을 이용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산업의 인구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1인당의 생산수준이 낮고, 반대로 3차산업의 인구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1인당의 생산수준이 높다. 이러한 형태로 산업구성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편리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先進國)이라 하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를 지칭하는데, 저개발국 곧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비해서 사용한다. 엄밀한 기준은 없지만, 1인당 소득, 공업수준, 산업진척도, 소비수준 등이 구분의 척도(尺度)가 된다. 1985~86년 당시 OECD 24개국이 대표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뒤져있는 나라들이 소위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인데, 종래에는 후진국·저개발국·발전도상국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발전을 하

고 있는 소수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국가가 대부분으로, 산업구조가 제1차산업, 그것도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나라가 많다.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비롯한 산유국(産油國)은 석유수출입이 많지만, 그 이외의 나라들은 특히 근년에 선진국의 불황여파로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발(先發)개발도상국이라면 흔히 중진국·준 선진국·신흥공업국 등으로 불린다. 주로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홍콩·싱가포르·브라질·대만·멕시코가 바로 이들인데, 특히 한국은 신흥공업국(NIC)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

소위 선진국병(先進國病)이란 것이 있다. 유럽병이라고도 하는데 영국병에 이어 이탈리아병, 프랑스병, 북구 복지국가병이다. 최근 서구선진국의 문명병이나 사회병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사회병리 증상에는 국정(國情)과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으로는 우선 경제의 정체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적 파탄, 노동자파업의 만성화 또는 정국의 불안정 등의 여러 증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증상은 바꾸어 말하면 활력의 저하, 근로의욕과 창의성의 결핍, 의뢰심의 증대와 자립

정신의 쇠퇴, 개인주의의 확대와 모랄의 저하 그리고 또한 자기 결정능력의 쇠약 같은 것이다.

회고해보면 과거 개발수입(開發輸入)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자원개발이나 상품생산을 지원해서 그 생산품을 수입하는 경제협력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1963년 UN무역개발회의에서 남북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편무역(片貿易)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이 방식이 제기되었다.

여하튼 상품의 수출입이나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의 체제는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개방경제(開放經濟) 곧 개방체제(Open System)를 추구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제가 봉쇄경제(封鎖經濟; Closed System)로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다.

개방경제는 국제적 분업의 이익, 외국제품과의 공개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제고는 물론이고 경쟁의 장점과 해외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규모 생산의 이익창출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약소한 나라가 이 체제를 취하면 경제 강대국의 침해 받을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수출주도형의 경제로 일관해 온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 정책과 공개시장체제로 전환하여 완전개방체제로 이미 들어서 있다.